

은행권 '건전성 악화' 한국경제 복병

대출 자제·회수 가능성 ... 기업 부도·가계 파산 '악순환'

달러와 원화 부족으로 금융시장 '패닉'(심리적 공황)을 초래했던 은행권이 이제는 건전성 악화로 우려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기업들의 부도 가능성은 커지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은행의 건전성 문제는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잠재적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은행으로서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과 가계의 대출을 자제하거나 회수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기업 부도와 가계 파산을 가져오면서 다시 금융

기관에 충격을 주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계다가 제2금융권에서 저축은행 뿐 아니라 할부금융사, 카드사, 보험사 등도 자금 조달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는 등 궁지에 몰리고 있다.

9일 금융계와 감독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기업과 가계가 어려움에 빠지고 있으며 이는 은행의 3분기 수익성을 최악의 상태로 몰고 가면서 곧바로 은행 건전성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국민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2분기 12.45%에서 3

분기 9.76%로 주저앉았다. 신한은행은 2분기 12.5%에서 3분기 11.9%로 떨어졌고, 외환은행은 11.56%에서 10.64%로, 기업은행은 10.49%에서 10.15%로 각각 하락했다.

각정이하 여신비율은 국민은행이 0.12%포인트, 하나은행이 0.18%포인트 상승했고 연체율은 우리은행이 0.13%포인트, 하나은행이 0.17%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이런 점을 감안해 국내 은행들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무디스는 지난달 29일 SC제일은행의

재무건전성 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한 데 이어 7일에는 외환은행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앞서 지난달 1일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은행들에 고금리 특관계금의 판매 자제, 증자, 배당 억제 등을 통한 건전성 제고를 주문하고 있다.

제2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뿐 아니라 다른 업체의 업체들도 신용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부금융회사들은 주요 자금 조달처인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의 발행이 막히면서 아

사직전에 몰렸다.

할부금융사의 채권 발행 규모는 9월 7천398억 원에서 지난달에는 1천450억 원으로 20% 이하 수준으로 급감했다.

우리파이낸셜은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에서 3천억 원을 수혈 받기로 했고 하나캐피탈도 계열사인 하나은행으로부터 2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받는다.

카드사의 채권 급리는 8% 중반까지 뛰어올랐고 발행규모도 지난달 6천4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25.6% 감소했다. 보험회사들도 채권과 주식 등 보유자산의 가치하락 여파로 보험금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져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다.

연립뉴스

“中 내년 성장률 급락 한국 수출 타격 우려”

LG경제연구원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7%대로 급락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전선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9일 '중국 경기부양 성공할 것인가'라는 보고서에서 "미국 등 선진국의 침체로 중국의 고도성장이 이끌 수 수출이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며 "이를 내버려둘 경우 투자자 소비 등 중국의 다른 성장엔진이 모두 악화하면서 경제 침체가 불가피해지고 이는 한국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고 밝혔다.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은 9.0%로 2003년 2분기의 7.9%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 이같은 추세라면 내년 성장률은 중국 공산당의 정책목표인 8%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수출 둔화세가 지속하면 각종 경기부양책도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연구원은 "수출·투자·소비 등 성장요소를 종합적으로 볼 때 수출과 투자부문에 있어서는 일차로 빠른 악화를 내느냐에 성패가 달렸다"며 "투자부문에서는 급격한 하락세를 제어할 정책수단이 적지 않지만 수출은 해외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있어 정책대응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적극적인 부양책을 감안하면 내년에 8%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내년 선진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다면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한자리수로 떨어지고 경제성장률은 7%대까지 밀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립뉴스

“환율 변동폭 커질때 정부 개입 신중해야” 금융연구원 지적

최근 외환 거래량이 급증하고 환율 변동폭은 두 배 이상으로 커져 정부가 시장 개입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9일 '최근 외환시장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 10월 중개회사를 통한 일평균 외환 거래량이 33억7천만 달러로 9월의 58억1천만 달러보다 40%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원·달러 환율의 일평균 변동폭과 변동폭은 각각 4.93%, 65.8원으로 9월의 2.18%, 24.7원보다 커졌다.

이윤석 연구위원은 "지나치게 변동성이 커지면 경제 주체들의 향후 경영계획 수립이 미뤄지고 시장참가자들의 거래의욕이 떨어지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주문했다.

연립뉴스



불 밝힌 크리스마스 정원
지난 8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후문 주차장에서 불을 밝힌 크리스마스 안개등을 보고 고객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신세계는 3만 여개의 전구로 후문 주차장과 정문광장 등에 화려한 '크리스마스 정원'을 꾸미고, 본격적인 겨울고객 맞이에 들어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주가 변동 90% 이상 대외 요인 영향 가장 커”

KDI 분석 외환위기 이후 국내 주가 변동의 90% 이상이 대외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송준혁 연구위원은 9일 보고서에서 한국·중국·일본(아시아), 미국·캐나다(북미), 영국·프랑스(유럽) 등 3개 지역 7개 국가의 성장률과 주가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변동성 요인으로 ▲전체 국가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세계 요인) ▲각 국내국가에만 주는 요인(국내 요인) ▲해당국에만 미치는 요인(자국 요인)으로 분류했다.

1993년 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월별 주가지수를 이용해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이전 우리나라의 주가 변동에 대한 세계 요인의 기여도는 4.5%에 불과했다. 아시아 역내요인과 자국요인의 기여도는 각각 45.9%와 49.6%에 달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세계 요인의 기여도가 54.1%로 크게 상승한 반면 국내 요인은 36.7%로, 자국 요인은 9.2%로 하락했다. 세계 요인과 국내 요인을 합한 대외 요인이 주가 변동의 90.8%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자본시장이 해외 변수에 민감해진 것이다. 이와 달리 신흥국에 대한 대외 요인의 기여도는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연립뉴스

“가계 빚 악화·부동산값 급락엔 ‘실물+금융’ 복합 불황 을수도”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가계의 재무구조가 취약해진 상황에서 부동산가격이 급락하면 실물과 금융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불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부동산발(發) 실물경기 침체 가능성과 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갈수록 악화하는 가계부채 문제와 자산 디플레이션 현상에 따라 가계발 복합 불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가계의 자산은 유동성이 낮은 실물이지만 부채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있는 금융권 대출"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붕괴하면 실물자산이 매각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채를 갚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매각하거나 개인파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내수는 더 위축되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면서 복합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가계가 금융자산을 서둘러

매각하면 금융시장의 혼란과 금융자산 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인 부채가 많지 않은 이들도 개인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해 소비를 줄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연립뉴스

신용회복 대상자도 전세자금 빌려준다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들도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9일 서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이런 내용의 금융소외자 특별보증 방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에게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전세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연립뉴스

원유가보다 싸진 국제 휘발유값

제조비용 고려하면 비정상적 ... 국내 판매 평균 휘발유값은 1,567원

최근 국제 휘발유 가격이 급락하면서 원유 가격을 밑도는 비정상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9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7일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거래된 휘발유(옥탄가 92 기준)는 배럴당 52.76달러(약 92 원)로 배럴당 53.81달러)보다 1.05달러 낮았다.

휘발유 가격은 2005년 5월25일 배럴당 52.75달러를 기록한 이후 3년6개월 만에 가장 낮았고 두바이유는 지난해 1월31일(53.16달러)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휘발유는 지난 5일 배럴당 59.36달러로 두바이유(59.26달러)보다 0.10달러 낮아졌으며 6일에도 56.21달러로 두바이유(55.66달러)와의 격차를 더 벌렸다.

8월1일 휘발유는 배럴당 120.25달러로 두바이유(120.40달러)보다 0.15달러 낮았다. 당시 휘발유의 역전은 2001년 8월 2일 이후 7년 만에 처음이었다.

휘발유는 원유를 정제한 제품으로 제조비용을 고려하면 제품이 원료보다 가격이 높아야 하지만 경기침체에 따라 비정상적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요소총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일 휘발유 전국 평균값은 1.567원 567.30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2일 1.599.94원을 기록해 지난해 11월 첫째주 이후 처음으로 1천600원 아래로 내려섰으며 6일 동안 1.567.30원 내렸다.

연립뉴스

원유보다 휘발유가 싸진 현상은 국제 유가가 급락할 당시인 8월 1~6일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나타났다.



로또복권 (제310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1 5 19 28 34 41	16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296,713,325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9,619,004
3	5개 숫자 일치	1,592,036
4	4개 숫자 일치	64,088
5	3개 숫자 일치	5,000

팝콘복권 (제133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2조 267910
2	1억	1조 574475
		3조 701430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48195
5	50만	각조 4249
		각조 32
6	2천	각조 54
		각조 18
		각조 5
7	1천	각조 9
		각조 2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미감일	연락처
☐그린텔	KTF 총정리 고객지원센터 상담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0	042-223-4900
금호생명	금호생명 Meister FC (국내최고수준수당/선지급)	초대졸/경력무관	2800~3000	11/11	010-7566-7700
대우(주)	(담당)영업관리(제품배송 및 거래처관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2	043-731-0009
니산글리스텍(주)	경리사무직 직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1/12	062-942-2285
서양기계공업(주)	정규직 구매사무원 (기계전공우대)	대졸/경력무관	3000~3200	11/13	062-960-5012
☐태성TEC	기술팀 토목계측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2200~2400	11/13	062-672-3746
햇불	제품 편집디자인, 상품보정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3	070-7583-5994
대일하이텍(주)	(정규직) 배송, 매장, 영업관리 담당 직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1/14	011-644-2349
남해종합개발	토목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4	062-220-2514
유진전자(주)	경리, 총무, 회계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5	062-371-2119
광명	창고관리 인출고 및 배송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1/15	010-2068-8663
☐인포레кс	온라인 광고 디자이너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11/15	062-380-8038
☐와이에스피	생산직(자동차부품 포장)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7	062-945-9841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같은학교, 학생끼리 통화로 50%할인

☐☐☐ 학교끼리 T타임 할인제도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